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세례 축일
제33권 7호(다해) 2013.1.13

[묵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세례 후 들려온 하느님의 말씀
세례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의 세례는
오히려 세례를 축성하기 위함이요
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세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선포됨이 아닐까.

처음부터 타고난 거룩함이 있다기보다,
그 일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행한다기보다
우리가 행하기에 그것이 거룩함이 되도록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작은 배려가
하느님을 깨닫게 하는 사랑이 되게 하고
하찮은 노동도 거룩한 봉사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함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했던 힘이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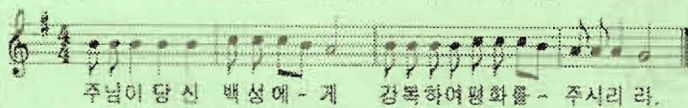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피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 (생) 김세진 요한
주 일 낮 미사	(연) 이재우 마티아, 이만춘 마티노, 이진심 데레사, 이경용 야고보,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정운택, 석효정 스테파노 (생) 이윤조 클라라, 이경수 헬레나 & 이정현 가정, 민석준 토마스 & 미애가정 & 민영준 마르코, 이준석 노엘, 윤희동 안토니오 & 윤세라피나, 한금순 수산나, 민순섬 사비나 & 박씨니 마가렛, 고천용 &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김관기 라파엘 & 김명재 아가다 가정, 박인수 프란치스코, 라자로 회원들, ME가정, 오 마우라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2,1-4.6-7

화답송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러나.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영광의 하느님 찬등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제 2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10,34-3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요한이 말하였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시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복 음 루카(Luke) 3,15-16.21-22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83	183	183
봉헌	268	268	315
성체	306	306	309
파견	235	235	31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말씀과 성소들

가) 하느님 말씀과 성직자

주교직에서 저의 형제들인 모든 주교에게, 경청하는 동정녀
(virgo audiens)이며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본받아 자
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꾸준히 성경을 공부할 것을 권고
합니다.

80). 사제들에 대해서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씀들을 환
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분은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제는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
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
하여 축성되고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신앙을
따를 수 있도록 불러 모으며,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게 알려 주시고 내어 주신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하느님의 신비 속에서 천교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
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제는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해야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주석
학적인 측면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분명 필요한 일
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제는 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사
제의 생각과 감정 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사제 안에서 새로
운 시각, 곧 ‘주님의 생각’(1코린 2,16)이 싹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과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복음을
투명하게 내비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되어 가야 합니다.
“사제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사제는 주님의 완
벽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진리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진실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제 성소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
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 대해서 이를 직접 말씀하십
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
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요한 17,17-18). 제자들은 어떤 의
미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잠김으로써 하느님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은 그들을 정화하는
씻음과 같고, 그 말씀이 그들을 변모시켜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세례, 회개와 은총의 시간

연중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전례력에 따라 매해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에 맞이하는 주님 세례 축일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습관처럼 흘러보냈던 축일이 '신앙의 해'를 지내고 있는 올해에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교황님께서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장하고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대의 유대인 관습을 살펴보면 세례자 요한이 베포 세례에 담긴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기원전 사해 주변 기슭에 살았던 쿨란 공동체에서는 물로 몸을 닦는 중요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목욕 의식을 통해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을 정화하고 깨끗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의식의 연장선에서 세례자 요한은 세례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선포하고, 회개를 동반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도 첨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은 깊은 통회와 함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세례를 받으러 세례자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약성경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시점이 예수님께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신 출발점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대가 왔음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서 저자

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전하던 것과 같이 세례 후에 즉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네 개의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교 초기 전승을 이용하여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로 내려오시어 잠정적으로 머무르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제2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초대 교회의 해석을 첨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루카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이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도 세례의 순간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례의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의 순간은 회개를 통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이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례의 순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세례는 건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만나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점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해'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HAPPY New Year!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주님 세례 축일

오늘(1월13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축일'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전례력으로는 주님 세례축일로 성탄시기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 홈페이지 참여행사 '새해맞이 나의 신앙다짐' 5행시 공모

- 공모시기 : 1월31일까지
- 5행시 각첫글자(주제) : 백 · 삼 · 위 · 성 · 당
- 공모방법 : 백삼위성당 홈페이지(www.103skcc.org)에 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리십시오.
- 상품 : 1등 전기밥솥, 2등 고급핸드백, 3등 커피세트
- 시상 : 사목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2월3일 발표
-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홍보분과장 ☎(310)594-9472

◆ "오 마우라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월15일(화)은 성 베네딕투스의 영적 아들이며 베네딕도회의 설립자로 알려진 성 마우로 축일로, 본당 오향숙 마우라 수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 오는 2월2일(토)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27일(주일)까지 성물부 김막달레나 또는 사무실
- 봉헌미사 : 2월2일(토) 오후 7시
- 문의 : 김 막달레나 ☎(310)539-3377

◆ 예비자 교리반 및 신자재교육 재개강

-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저녁미사후 성전)
- 신자 재교육을 겸하고 있는 교리반에 일반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이영석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백삼위 성모회표 김치판매

- 일시 : 1월26일(토), 27일(주일)
- 품목 : 포기김치, 총각김치
- 빈병 모읍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문의 : 최길숙 요세피나 성모회장 ☎(310)738-4788

◆ 성령기도회 봉사자 피정

- 일시 : 2월1일(금) 오후 4시~2일(토) 오후 2시
- 장소 : 드폴 피정센터(1105 Bluff Rd. Montebello, 90640)
- 강사 :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미리내 수도회)
- 대상 : 기초성령세미나를 참가했던 교우는 모두 가능
- 참가비 : \$100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본당 새해달력과 주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캘린더와 주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이들 업소를 신자분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물판매대에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한글-영어 합본 상장애식서 : \$15
- 상본(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사무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13일(주일) : 토런스 서1반(소고기파개장 \$3) 주일학교(자모회임원 짜장밥)
- 1월20일(주일) : 토런스 남1반(소고기무국 \$3) 주일학교 수업없음(마틴루터킹Jr.기념일)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윤철	구자운	금영도	김교복	김기정	김선제	성전헌금	강윤철	구자운	금영도	김교복	김기정	김선제
	김영경	김영길	김 욱	김원모	김정엽	모은기		김영길	김 욱	김원모	김정엽	모은기	박씨니
	민기남	박씨니	박정희	방정복	배기열	석순영		방정복	석순영	신경훈	안연숙	이정수	이귀분
	송기철	신경훈	안연숙	우영희	이경수	이귀분		이근모	이남현	이명자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이근모	이남현	이명자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의 명	장영우	전정일	정규숙	정동호
	이운조	이은록	이인두	이종선	의 명	임분필		정열모	정정현	차인수	최길주	최원석	최태훈
	장영우	전정일	전전자	정규숙	정동호	정병훈		최희태	한창주	황인중	영희가보라	이크리스	
	정열모	정정현	조소영	주용순	차인수	최길주							
	최원석	최태훈	최희태	한창주	현석주	홍선자							
	황인중	황학수	영희가보라	이크리스									
합계 : \$11,010						합계 : \$4,795							
미사헌금(31,1,5,6일) : \$6,356						주일2차헌금 : \$799		감사헌금 : 이경태 황인중				구유예물 : \$137	

공지사항

◆ 주일학교 10학년 전진교리반 학부모 모임

- 일시 : 1월27일(주일) 수업시간중
- 내용 : 성체성사, 대부모선정, 2학기 스케줄 관련등
- 문의 : 빈센트 신 전진교리교사 ☎(310)744-5878

◆ 주일학교 앙상블 창단 및 단원 모집

- 대상 : 5학년~12학년
- 접수 : 전화 또는 e메일 pius103ss@gmail.com
- 오디션 : 1월27일(주일) 낮 12시, 오후 3시 각 수업후
- 장소 : 주일학교 교사실(음악교사 크리스티나 진)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213-258-8665)

◆ 주일학교 Youth Group 첫모임

백삼위 주일학교의 외부활동 그룹인 Youth Group이 첫모임을 갖습니다. Life Teen, World Youth Day와 같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와 활동을 통해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 일시 : 1월20일(주일) 학생미사후 교사실
- 대상 : 9학년~12학년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2월첫주부터 수업

- 대상 : 현재 8학년~11학년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2층) 상담 및 반 배정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중 :
* 등록금 : 첫째아이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아이 수업료 면제 *대상 : K~12, SAT II

◆ 한국어를 배우고싶은 어른들을 초대합니다.

- 대상 : 한국어가 서툴거나 못하시는 학부모 및 일반 신자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한국학교 사무실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교장 ☎(310)464-7490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일시 : 1월19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구 '1일 점심과 차'행사)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매주 공동체 앞마당에서 거라지세일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4학기 강의 안내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 2'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2013년 2월8,9,10일(금토일 저녁시간)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성당(2625 S. Vermont Ave.)
- 대상 : 신자 및 일반인 모두 환영 * 수강료 : \$50
- 교재 : 비참과 자비의 만남(송봉모 신부 저)
- 등록문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소공동체 새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오신재 데히틸다 213-675-0498 1/11(금) 오후 7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12(토) 오후 6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18(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이진향 아네스 989-0366 1/19(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심재은 클레멘스 999-5808 1/12(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유선희 토사 710-8416 1/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1/18(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안혜진 세레나 634-6923 1/10(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원 마리아 213-550-6653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999-1448 1/12(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이근모 마리오 518-6142 1/12(토) 오후 7시 성당
	2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재은 베드로 377-0345 1/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1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성미선 리디아 944-4577 1/12(토) 오후 5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8(화) 오전 10시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모임의 날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기도

자기의 처지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들을 분별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 등등... 금년에 성공한 어떤 분은 금단현상에 시달리던 한동안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과 물고 있지않은 사람으로만 나누어 보였다고 합니다. 신앙공동체안에서는 열심히 신자와 쉬는 교우들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별 되기도 하겠지요.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제1과 제1장일 텐데, 저는 그저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공동체에서, 신앙인의 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듣고 말하는 단어는 사랑과 은총과 더불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이 습관적으로 성찰없이 쓰임으로써 그 본질과 의미에 무감각해지기도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읊조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기도하지 않는 무반성적 삶에 대한 자각으로 가슴이 서늘해지곤 하지요.

기도란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대화라고 하고 우리의 삶자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느님을 향한 봉헌이고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포괄적 해석도 있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직업인인 제게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쓰고 싶다가나 지문 사이의 행간 즉 침묵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가당치 않은 꿈이 있습니다. 언어의 불완전함과 교활함, 표현의 불가능성에 때때로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형용사와 부사와 추상명사들로 본질을 가리고 빈약함을 감추면서 종내는 그 숲에서 길을 잃고 마는... 외국의 유명한 앵커가 마더 테레사께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물었더니 수녀님께서는 '그저 듣습니다.' 하셨습니다. 뒤이어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하는 물음에 '그분께서도 그저 들으시지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만 크게 허를 찔린 기분이었겠지요.

이즈음 러시아 순례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동방 정교의 신자인 그는 참된 기도를 가르쳐 줄 스승을 찾아 러시아 곳곳을 다니던 중 한 수도자로부터 예수의 기도라 불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기도문을 배웁니다. 그는 그 짧고 간단한 기도문을 반복해 바치면서 마침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고된 순례길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한층 믿음이 깊

어졌다고 합니다. 장황한 말, 말, 말의 숲에서 헤매임 없이 곧장 주님께로 가닿는 화살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믿음의 고백과 간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기도라 느꼈습니다. 주님의 자비에는 모든 선한 것, 옳은 것, 사랑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정희 실비아 / 소설가

- 길을 찾는 고대에게 -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지도자들을 꾸짖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의 우리 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바라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꿈꾸신 인간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한마디로 답한다면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죽고 난 후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여긴다면 그 역시 틀린 답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는 섬김과 사랑과 나눔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실천으로 그 나라를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지도층들에 대한 꾸짖음 역시 그들이 하느님 나라 건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성서학자는 이 사회를 '콘트라스트 사회'라고 말합니다. 대개 '대조사회'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마저 내어 주라,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지침이 되는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와는 모든 점에서 대조되고 대비가 되는 참다운 인간사회의 모델, 그래서 대조사회라고 합니다.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대조사회의 모델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 또한 대조사회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우린 다행이다.

위로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슨 도움이나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사는데 꿈이 꼭 필요한 거냐고 되물습니다./ 희망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꼭 희망이 없다 합니다./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 고까짓 것 합니다./ 세상은 생각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살게 된다던데.

◆아영 아녜스 수필가